

판소리는 왜 판소리라고 부르나요? 무슨 뜻인가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보통은 '어려 사람이 모인 장소'라는 뜻의 '판'과 '노래'를 뜻하는 '소리'가 합쳐진 말이라고 봅니다. 즉, 판소리는 '소리판에서 한자가 공연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판소리 공연은 처음에는 마당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했지만, 조선 후기 들어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양반이나 부호의 집에서 공연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판소리 창자는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쳤나요?

명창으로 이름난 사람들 아래에는 늘 소리꾼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목소리를 얻는 경자 즉 득음(得音)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득음을 위해 우렁찬 소리를 내는 폭포 아래에서 수련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고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소리판에서 북장단을 치고 때로는 추임새를 넣으며 소리꾼과 호흡을 맞추는 전문 예술인입니다. '일고수 이명창(一鼓手二名唱)'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수가 우선이고 창자는 그다음이라는 뜻으로, 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판소리는 누가 지었고 어떻게 전승되었나요?

판소리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조선 영·정조 시대의 명창 몇 사람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 후기에는 꽤 널리 향유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판소리는 조선 말 신재효가 그 사실을 정리·기록하기 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만 전승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점차 세련된 문학 작품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래 판소리 작품은 열두 마당이었지만, 지금은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가>, <적벽가> 다섯 마당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이르러서는 여러 창자가 역할을 나누어 맡아 소리하는 창극(唱劇)이 생겨나 대중의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판소리가 공연되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다섯 마당도 계속 공연되고 있고 새롭게 창작된 판소리도 꾸준히 공연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의 작품을 판소리로 번안하여 발표하거나, 대중가요나 재즈를 판소리에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평양감사 환영연도> 중 명창 모음집의 판소리 장면



그림 <가객 소리하고>(김준근의 판소리 연희 장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의 공연

## 감상의 뜰

《홍보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로, 《박타령》으로도 불린다. 중요 무형 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설의 길이가 짧은 편이라 완창(完唱)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짧다. 《홍보가》는 우스운 재담이 많아 판소리 가운데 특히 해학성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놀부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어 비판하는 장면에서는 풍자적인 표현도 많이 나온다. 이 교과서에 수록한 것은 20세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 김연수(1907~1974)의 장본이다. 《홍보가》는 업으로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신과공보와 권선징악을 말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변화하는 조선 후기 사회 현상이 반영되어 있고, 현실주의적인 서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 자료 창고 김연수 명창의 숨은 이야기

이 책에 실린 《홍보가》 사설은 김연수 명창이 정리한 것이다. 그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홍보가》를 비롯하여 판소리 다섯 마당의 사설을 정리해 내었다.

가사 정리를 위하여 겪은 그의 고초는 실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누가 누구의 필사한 가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 불원천리하고 찾아다녔으며 자기가 직접 모시고 있는 선생들의 가사를 모두 받아 필사하여 비교 연구하고, 모르는 구절은 고향의 서당 선생이나 그 선생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문의하여 터득하였다. 명창 박유전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남 장흥에 산다는 말만 듣고 내려가서는 그를 찾느라고 밤새 몇 마을을 헤매다가 도둑으로 물린 일도 있었다. 한번은 신재효의 가사를 가지고 있다는 옆 모라는 사람이 전북 고창에 산다는 말을 듣고 그의 제자 성순종을 대동하고 설달도 그믐께인 엄동설하에 내려간 일이 있었다. 마침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어 정읍에서 고창까지 50여 리 밤길을 걸어서 그 옆 씨 짚을 겨우 찾으니까 옆 씨가 이미 지나온 정읍에 산다는 것이었다. 그 밤에 되짚어 정읍에 나오느라고 피로와 감기로 며칠을 앓았다. 그러나 그때는 고생한 보람이 있어 그 엄 모한테 신재효의 가사를 얻을 수 있었다.

- 박경수, 《소리꾼들, 그 실을 찾아서》에서



① 김연수 명창이 열창하는 모습

### 열어 읽을 작품

풍자와 해학이 잘 드러난 작품

〈태평천하〉  
채만식

천일과 인물의 삶을 통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반민족적인 인간상을 비판한 소설이다. 작품 곳곳에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와 해학의 표현이 들어 있다.

홍부 부부의 삶을 그린 작품

〈홍부 부부상〉  
박재삼

홍부 부부가 박타는 장면을 소재로 한 박재삼의 현대 시이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소박한 마음이 재물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 <흥보가>에서 흥보의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고, 그러한 **해학적 표현의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  
• 144쪽 145쪽

### 종합적 표현의 효과

(2) <홍보가>에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부분을 찾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현실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자.


- 흥보가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매공을 팔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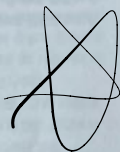
- 많은 민중이 극심한 가난으로 형편게 생활함

(3) <sup>박</sup>홍보와 처지가 비슷한 당시 사람들에게 <홍보가>가 어떻게 수용되었을지 짚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판공처 들고 열매를 나눠서 가난한 자의 국밥을 끓이게*

**3**  **모둠** 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난 우리 문학 작품을 더 찾아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박지현의  
(양반전)이 떠올라.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탕약을 풍자한 작품이지.

- 반사원 (리쌍진)
- 주매각 (주영환) 



# 1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여 이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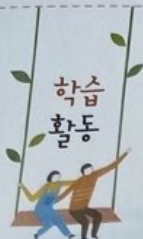
홍보의 반응	사건	홍보 아내의 반응
홍보가 내가 형을 만나고 싶어 정신감	홍보의 자녀들이 밥을 먹고 싶다, 장가를 들고 싶다고 함.	자식들이 평생을 돌려 참고 있음
돈을 구할 방법을 알게 되어 기쁨.	홍보가 관아에 환자를 얻으러 갔다가 매물을 팔기로 함.	관과 이런 말야하면 사형에 처함
평생 한 가정을 임이 되어 서망함	평생을 바쳐 매물을 팔고 정리로 함	남편이 매를 팔지 않은 사실에 기뻐함.

## 2 다음은 판소리에 관하여 설명한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홍보>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탐구해 보자.

판소리가 등장한 17세기 말 또는 18세기 초에 이르러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부(國富)가 증진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농토를 잃고 쫓겨나 유랑민이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판소리는 이와 같은 사회 변동 속에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 의식의 성장과 함께 널리 불리기 시작한 우리 고유의 예술이다.

이러한 판소리에 많이 드러난 표현 방식은 해학과 풍자이다. 해학과 풍자는 모두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장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를 보인다. 해학이 대상을 애정으로 감싸 안으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풍자는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비꼬는 것이다.





# 1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여 이 작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홍보의 반응	사건	홍보 아내의 반응
	홍보의 자녀들이 밥을 먹고 싶다, 장가를 들고 싶다고 함.	
돈을 구할 방법을 알게 되어 기쁨.	홍보가 관아에 환자를 얻으러 갔다가 매품을 팔기로 함.	
		남편이 매를 팔지 않은 사실에 기뻐함.

## 2 다음은 판소리에 관하여 설명한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홍보>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탐구해 보자.

판소리가 등장한 17세기 말 또는 18세기 초에 이르러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부(國富)가 증진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농토를 잃고 쫓겨나 유랑민이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판소리는 이와 같은 사회 변동 속에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 의식의 성장과 함께 널리 불리기 시작한 우리 고유의 예술이다.

이러한 판소리에 많이 드러난 표현 방식은 해학과 풍자이다. 해학과 풍자는 모두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장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를 보인다. 해학이 대상을 애정으로 감싸 안으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풍자는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비꼬는 것이다.

